

3(2)
-
281

형성문자①



壤

흙덩이
양:

壤자는 '흙덩어리'나 '땅', '경작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壤자는 土(흙 토)자와 襄(도울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襄자는 장례식을 치르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壤자는 경작이 가능한 비옥한 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壤자에서 말하는 '흙덩어리'라는 것은 경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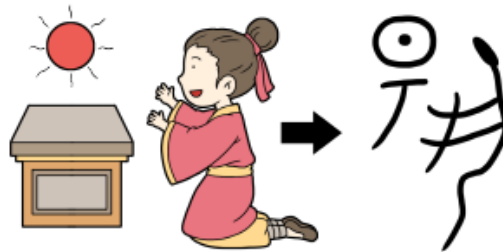
소전

壤

해서

3(2)
-
282

회의문자①



揚

날릴 양

揚자는 '오르다'나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揚자는 手(손 수)자와 易(별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易자는 햇별이 제단을 비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태양이 제단을 비추는 곳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제단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그러니 금문에 그려진 것은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揚자는 '(손을)쳐들다'나 '칭송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오르다'나 '올리다'라는 뜻이 확대되었다. 두 손을 들고 신을 찬양하던 모습은 후에 易자가 모습을 대신하게 되었다.

揚

금문

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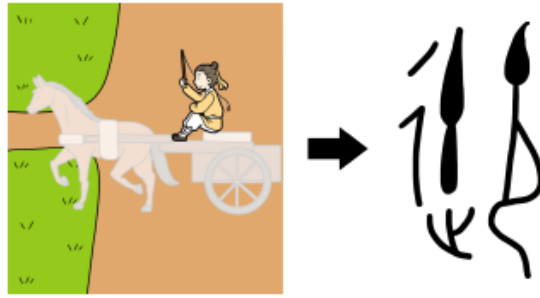
소전

揚

해서

3(2)
-
283

회의문자①



御

거느릴
어:

御자는 '거느리다'나 '통솔하다',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御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卸(풀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卸자는 사람이 마차에 앉아 채찍질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풀다'나 '부리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부리다'라는 뜻을 가진 卸자에 彳자가 결합한 御자는 '마차를 몰아 길을 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御자는 '마차를 몰다'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거느리다'나 '통솔하다', '길들이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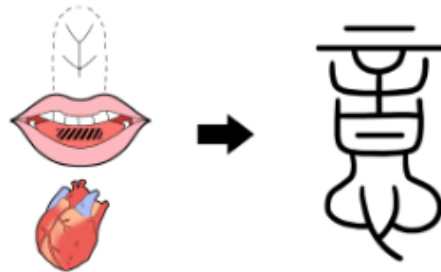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3(2)
-
284

회의문자①



憶

생각할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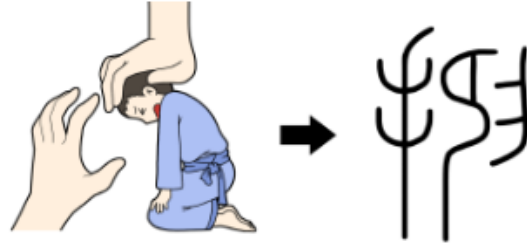
憶자는 '생각하다'나 '기억하다', '추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憶자는 心(마음 심)자와 意(뜻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意자는 말을 심장에 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뜻'이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意자가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생각을 뜻하기 위해 다시 心자를 더한 憶자가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 憶자에는 두 개의 심장이 있는 셈이다.

소전

해서

3(2)
-
285

회의문자①



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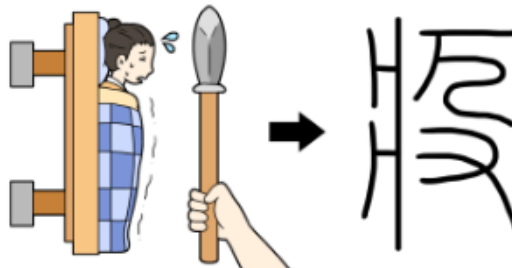
누를 억

抑자는 '누르다'나 '숙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抑자는 手(손 수)자와 印(나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抑자는 사실 手자와 印(도장 인)자가 결합한 것이다. 抑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짓누르는 印(도장 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印자이다. 이렇게 사람을 억누르는 모습을 그린 印자는 '누르다'나 '숙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도장'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手자를 더한 抑자가 '누르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86

회의문자①



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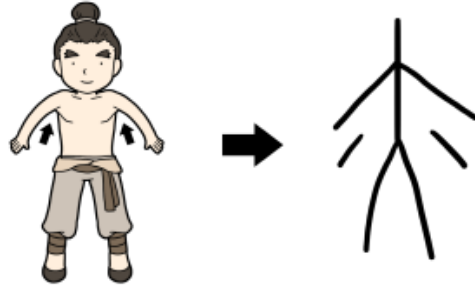
전염병
역

疫자는 '전염'이나 '역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역귀'란 귀신이 퍼뜨리는 돌림병을 말한다. 그래서 疫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疫자가 疒(병들 념)자와 役(부릴 역)자가 결합한 글자라는 것이다. 즉 疫자는 '부림을 당하는 병'이라는 해석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전염병을 귀신이 퍼뜨리는 병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疫자에 쓰인 𩇛(뭉둥이 수)자가 '뭉둥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마치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병이라는 의미에서 전염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소전	해서

3(2)
-
287

지사문자①



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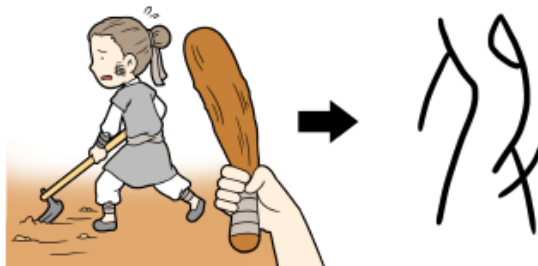
또 역

亦자는 '또한'이나 '만약', '겨드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亦자는 亼(돼지해머리 두)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머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亦자의 갑골문을 보면 大(큰 대)자 양옆으로 점이 찍혀있는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겨드랑이를 가리키기 위해 만든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그래서 亦자의 본래 의미는 '겨드랑이'였다. 그러나 후에 亦자가 '또한'이나 '만약', '단지'와 같이 다양한 문법적인 관계를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月(육달 월)자를 더한 腋(겨드랑이 액)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88

회의문자①



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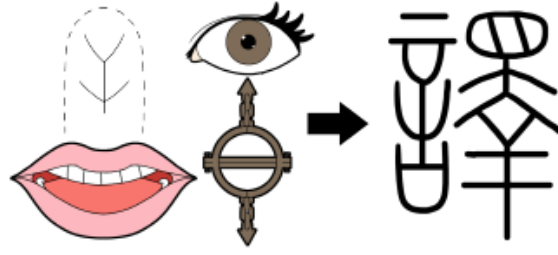
부릴 역

役자는 '부리다'나 '일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役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𠂔(몽둥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役자는 彳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役자의 갑골문을 보면 彳자가 아닌 人(사람 인)자가 𠂔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 뒤로는 몽둥이를 든 손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일을 시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役자는 본래 노예를 부린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人자가 彳자로 잘못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

3(2)
-
289

형성문자①



譯

번역할
역

譯자는 '번역하다'나 '통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譯자는 言(말씀 언)자와 睪(엿볼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睪자는 죄수를 감시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근세기까지 국가 간 언어를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은 나라에서 관료를 뽑아 관리했었다. 나라에서는 이들에게 사신을 접대하거나 통·번역 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이들을 역관(譯官)이라 했다. 그래서 譯자는 지금도 통역이나 번역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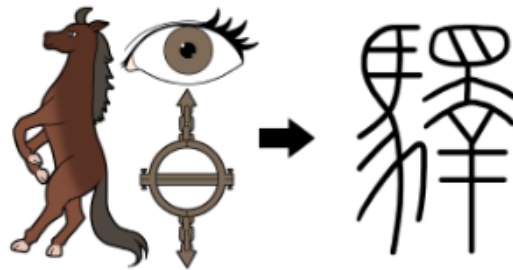
소전

譯

해서

3(2)
-
290

회의문자①



驛

역 역

驛자는 '정거장'이나 '역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驛자는 馬(말 마)자와 睪(엿볼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睪자는 죄인을 감시하는 눈을 그린 것으로 '엿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驛자는 파발을 띄우기 위해 말을 갈아타던 곳을 뜻했었다. 파발은 변방으로 가는 공문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 통신수단이었다. 이 파발을 신속히 보내기 위해 말을 이용했으니 驛자에 쓰인 馬자는 그 말을 뜻하는 것이고 '엿보다'라는 뜻을 가진 睪자는 변방을 감시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말은 속도가 빨랐지만 먼 거리를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약 10km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곳을 역참(驛站)이라 했다. 그러니 우리가 '오래 걸린다'를 '한참 걸린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역참 하나만큼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驛

소전

驛

해서